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저 그들이 좇는 불행한 행복을 좇지 않는다며 나를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더군. 그러더니 나의 홀로 사는 삶을 비난했고, 오로지 자신들만이 인간에 쓸모가 있다고 우기더니, 급기야 자신들이 빠져든 소용돌이로 나를 끌어들이려 애썼다네. 그러나 내가 세상 모든 이들과 터놓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아닐세. 대개는 나 자신을 위한 교훈을 내게 요긴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는 현재의 평온함 속에서 지난날을 살아오며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 여기고 몸부림쳤던 마음의 불안들, 그러니까 후원이니, 재산이니, 명성이니, 쾌락이니 하는 것들이나, 또 지구상 모든 곳에서 서로 싸워대는 사상 따위를 돌이켜보곤 한다네. 술한 사람들이 그린 망상에 빠져 그악하게 싸우는 것을 보아왔던 바, 이제 그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나는 우리 집 앞을 흐르는 강의 물결에 그들을 비교해보곤 하지. 강 밑바닥 바위에 부딪히면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고 마는, 그렇게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린 물결에 말야. 나로서는 그저 편안하게 시간의 강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더는 어디에서도 땅과 닿지 않는 미래의 대양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둔다네. 자연의 현재 있는 그대로의 조화로운 광경을 마주하고 그 조물주를 향해 몸을 일으켜, 다음 세상에서 있을 더 행복한 운명을 희원한다네.

비록 내 외진 오두막은 숲 한가운데 있어, 지금 우리가